

■ ■ ■ 중보기도 Intercession Prayer

1. 제 4대 담임목사 청빙을 위하여
2. 2021년도 예배에 생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3. 환우와 시니어 공동체를 위하여
4.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하여
5.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와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6. 선출된 청빙위원들을 위하여
7. 국내/해외 선교지와 사역자의 안전을 위하여
8. 한반도 평화와 정세 안정을 위하여
9. 미국의 정치/경제/문화를 위하여
10. 지역교회 살리기(포도나무교회-김명신 목사) 위하여
11. 이번주 지역교회 중보기도: 타코마 선한목자교회 - 연태희 목사

■ ■ ■ 국내/해외 선교 Home/Overseas Mission

국내 선교 지역

- ▶ 방송 선교지원
- ▶ 노숙자 동지 선교회
- ▶ 아프리카 우물과기
- ▶ 샤론센터
- ▶ 오병이어의 기적 M52
- ▶ 한국선원 선교회
- ▶ 이완구 장학사역

선교 방송 스케줄

- ▶ 코엠TV(채널 257): 매주일 7:25AM
- ▶ 라디오 한국(AM 1450): 매주일 8:30AM
- ▶ 라디오 코리아(어플다운): 매주일 7:00AM

해외 선교 지역

- ▶ 동아시아 50개 교회
- ▶ 독일/시리아 난민선교(JDL)
- ▶ 쿠바(정경석)
- ▶ 니카라과(해밀턴)
- ▶ 도미니카 아이티(문애희/Vilcaive)
- ▶ 우크라이나(박철규/김경희)
- ▶ 잠비아(Emile)
- ▶ 말레이시아(고인섭)
- ▶ 터키(이성숙/자슈아)
- ▶ 슬로바키아(서일원/조정선)
- ▶ 헝가리/집시선교(박완주)

기독교 기관 선교

- ▶ 미주 남침례회 SBC
- ▶ 북미주 한인침례총회 CKSBCA
- ▶ 서북미 한인침례교 협의회
- ▶ 한인국내선교부
- ▶ 한인해외선교부
- ▶ 남침례교 6대 신학교
- ▶ 한국침례신학대학교
- ▶ 밀알선교단

제일 어린이 동산(Day Care)

1328 S. 84th ST., Tacoma
253) 535-9435 Director 박정희

아름다운 기도원

28814 Mountain Hwy E, Graham
253) 847-2250 Director 안광일 목사

SINCE 1975

2021년 7월 4일

WORSHIPPING CHURCH 2021

예배에 생명을 다하는 교회

타코마제일침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너진 세대를 연결하고, 교회와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성령공동체이다.

주일예배

장년부 제1부 한어예배 7:40AM / 본당
장년부 제2부 영어예배 9:20AM / 본당
장년부 제3부 한어(통역)예배 11:00AM / 본당
사랑부 예배 (장 애인)..... 11:00AM / 베들레헴

영아부 예배 9:20, 11:00AM / O-3
유치부 예배 9:20, 11:00AM / 나사렛
유년부 예배 9:30AM / 베들레헴

영어청년/Youth 예배 11:00AM / 안디옥
한어청년 1:30PM / N-201

YouTube tfbc

www.tfbc.org

수요일예배

장년부 한어예배 7:00PM / 본당
장년부 영어예배 7:00PM / 안디옥
영아부, 유치부 어와나 7:00PM / 나사렛
유년부 어와나 7:00PM / 베들레헴

금요일모임

Youth 7:00PM / 안디옥
영어청년 7:30PM / 유스룸
한글학교 6:00PM / 각교실

새벽예배

한어부 월-토 / 6:00AM / 본당
영어부 화-토 / 6:00AM / N-202

CONTACT

Phone: 253.535.5803 Fax: 253.535.2240
Address: 1328 S. 84th St., Tacoma, WA 98444
Email: tfbc002@gmail.com

tfbc 타코마제일침례교회
Tacoma First Baptist Church

주일예배

Worship Service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7:40

1부 인도: 남궁곤 목사

3부 예배 오전 11:00/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3부 인도: 전우일 목사

* 경배와 찬양

1부: 408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3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거리마다 기쁨으로”

“믿음 따라 걸음마다”

“예수의 길”

기도

1부: 권경수 집사

3부: 이호영 집사

봉헌찬양

1,3부: 431장 “내 주여 뜻대로”

공동체소식

* 성경본문

출애굽기 30:7-10

제 목

“기도할 때까지 기도하라”

말씀선포

전우일 목사

* 응답찬송

1부: 482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3부: “임재”

* 축도

* 표는 일어나 주십시오(All Rise)

이달의 말씀 Word of the month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편 8:1)

8. 유치부, 유년부 현장예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오늘(7/4)부터 진급한 학년으로
현장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9:30 예배	유치부(3y-K)	나사렛 성전	유년부(1-6학년)	나사렛 성전
11:00 예배	유치부(3y-K)	나사렛 성전	유년부(1-6학년)	베들레헴 성전

※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새학년 등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링크는 교회 홈페이지에 있음)

9. 자원봉사자 모집: 헌신하기 원하시는 분은 로비 안내데스크의 사인업 용지에 신청바랍니다.

(1)유치부 유년부 교사 및 자원봉사자 모집

(2)주차장 안전 요원 모집: 주일예배와 수요일예배 때

10. 예수마을모임: 예수마을 모임(한달에 1번)을 각 마을 형편에 맞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지기/돌봄지기께서는 COVID-19 방역수칙을 지키며, 예수마을모임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현금 안내: 현장 예배에 못오시는 성도님들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현금(수수료 현금액
x 2.69% + \$0.30)하거나, 우편으로 현금(되도록 체크로)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2. C-Drive 사역: COVID-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와 이웃, 그리고 미주 침례교 목회자들을 위한
사역을 진행중입니다. 기부물품이나 항목현금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사역(Administration Ministry) ◆

◇ 우리교회는 안전을 위하여 기존에 진행하던 코로나 방역 지침을 당분간 유지하겠습니다.

(1) 교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 주세요.

(2) 입장 철차를 지켜주세요(손소독, 체온 점검, 이름 기록).

(3)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여 자리에 앉아주세요.

◇ 주중에는 교회 메인 게이트(M번가)를 닫습니다. 데이케어 쪽(84번가) 게이트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수요일예배와 주일예배때에는 열어 놓습니다)

◆ 교우동정(Compassion) ◆

◇ 소천: 故 Anthony Milas 성도 6/29(화) 소천. 천국환송예배: 7/9(금) 오전 11시. 에드워드 장례식장

◇ 사무실 휴무: 7/5(월) 미국 독립기념일 대체휴일로 사무실 휴무합니다.

◇ 중보: Keneth Adkins, Gilbert Farmer, Mike Mooer, Tom Bayliss, Floyd Richardson, Eric Mose,
최재돈, 오창자

드려진 예물 Last week Offering (6.27.2021)

공동체 소식

Announcement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로비에서 사역자를 만나 교회 등록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WORSHIPPING CHURCH 2021

예배에 생명을 다하는 교회

타코마제일침례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TFBC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워싱턴 주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거나 교회를 방문할 때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주일 2부/3부/유스(영아청년부)/수요성령예배/새벽예배는 유튜브 라이브로 예배를 계속 제공합니다.
- * 유년부, 유치부는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제공합니다.
- * 영아부, 사랑부 예배는 당분간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 현장예배 가이드라인

- * 교회 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반드시 지정된 자리에만 앉아 주세요.
- * 서로서로 신체 접촉은 피하시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 주세요.
- * 본인이나 가족 중 아프신 분이 계신 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 주세요.
- * 예배가 끝나면 신속한 방역을 위하여 본당 건물 밖으로 퇴장해 주세요.

1. **2021년 교회 표어는 "예배에 생명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2. **수요성령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풍성한 찬양과 말씀이 있는 수요성령예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평강"**이란 주제로 누가복음 강해를 진행 중입니다. 수요성령예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제 4대 담임목사님 청빙 중**에 있습니다. 세워질 담임목사님과 선출된 청빙위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빙 진행에 관하여는 교회 홈페이지와 주보를 통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청빙광고: 6/8(화)~7/31(토), 청빙광고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2021년 여름성경학교(VBS)**가 지난 **6/25(금)-27일(주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여름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 **교회 피크닉: 7/4(오늘) 오후 12:30**, 교회 서쪽 주차장. 교회에서 간단한 점심(햄버거, 핫도그, 불고기, 물)을 제공합니다. 개인 의자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6. **하나님의 VIP 2021년 2기 개강: 7/18(주일) 오후 1시. N-209호**에서 시작합니다.
4주 과정의 하나님의 VIP를 수강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과 새가족들은 로비의 신청서나 교회 사무실에 전화로 신청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7. **생명의 삶 7월호**를 교회 사무실이나 로비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권당 \$5)

수요성령예배

Wednesday Prayer and Worship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이다

수요일 저녁 7:00/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찬양과기도	찬 양 팀
기 도	채길호 집사
제 목	[누가복음 강해 30: 평강] "증인의 사명"
성 경 본 문	누가복음 9:1-9
말 씀 선 포	남궁곤 목사

■ ■ ■ 봉사위원 Volunteer

	이 번 주	다 음 주
기 도 Prayer	1부 권경수 집사	1부 박종길 안수집사
	3부 이호영 집사	3부 김선 집사
	수요 채길호 집사	수요 경옥켄리 집사
주차장	안전을 위해서 본당 앞쪽으로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위원 Usher	안내: ① 교회 로비에서 온도체크를 받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사회적 거리 유지를 항상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① 당분간 예배 중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습니다. ② 로비에 비치된 헌금함이나 온라인 헌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오찬 봉사	COVID-19으로 당분간 주일 오찬은 없습니다.	

새벽 예배 설교

날짜	본문	설교자	날짜	본문	설교자
7/5(월)	출애굽기34:27-35	안재훈 목사	7/6(화)	출애굽기35:1-19	남궁곤 목사
7/7(수)	출애굽기35:20-29	전우일 목사	7/8(목)	출애굽기35:30-36:7	정주영 목사
7/9(금)	출애굽기36:8-38	남궁곤 목사	7/10(토)	출애굽기37:1-16	전우일 목사

※ 새벽예배는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으로도 제공됩니다.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 본문: 사도행전 18:24-26

오늘은 사도행전 18장과 19장에 나오는 두 가지의 '만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은 절대로 없습니다. 만약 '우연'이 말 그대로, 우연히 라도 존재할 수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지 않는 그 어떤 무엇인가가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중 누군가는 우연히 태어날 수 있고, 우연히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중에서 우리를 타코마 제일침례교회로서 만나게 하심으로 앞으로 이루실 '위대한 구원'의 이루어 가시는, 역사적인 만남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첫 번째 만남: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사도행전 18장 26절]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만남'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느 날 갑자기 에베소 회당에서 예수를 전하고 있는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이 만남이 성경에까지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연이 아닌 만남' 즉,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날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기 전의 상태를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결국 이들을 에베소에서 만나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24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25 그가 짝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오늘의 '만남' 이전의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성경에 능통했으며, 이미 '주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칠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볼로는 이 날에도 회당에 나가서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열심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날에 아볼로를 따로 불러내어 더 자세히 '하나님의 도'를 풀어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볼로가 만남을 통하여서 드디어 알게 되어진 '**하나님의 도**'가 무엇이었을까요? 간단히 말하자면 당연히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과 19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볼로의 인생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2. 두 번째 만남: 사도행전 19:1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뿔치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2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3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이번에는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 갔더니 마침 거기에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만남에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즉, '만남의 목적'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물어보기를, "**당신들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묻자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이 다시 묻습니다. "**당신들이 스스로 제자라고 하는데, 그럼 무슨 침례를 받았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요한의 침례만 받았습디다.**" 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만남**' 즉, 사도행전 19장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20년 이상 이 지난 시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은 아주 오래 전에 침례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이 아직까지는 성령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 만남의 주인공이었던 아볼로도, 19장의 이 제자들처럼, '**주의 이름**'으로는 침례를 받지 못한 것이며,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말을 잘하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 할 지라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남**'의 목적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최선을 다해서 이 귀한 '만남'을 완성해 가기 시작합니다.

4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5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6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므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 두 사람쯤 되니라

질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은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슨 침례를 받았는가?", "성령을 받았는가?" 만약 오늘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대답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해도 얼마든지 문제없이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구원 받지 못해도 성경을 많이 알 수도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쉽게 침례 받을 수 있고,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구든지 성령 받지 못하면 즉, '주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지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하는 것이지요. 사역을 해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무감각하게 살며,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 주셔서 만남을 허락하여 주셔도, 그 만남에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여전히 연약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면 늘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그래서 무얼 하겠나?, 감히 주님의 제자라 고백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성령을 못 받은 그 제자들처럼 내 신앙이 가짜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길을 걷다 가도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만나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고, 사회생활 하면서 내가 만나야 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또 다시 말씀 드리면,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들은 예수를 머리로서만 아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볼로와 같이),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으며 성령을 받지 못하고 단순히 지식만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곳에 있는 우리의 만남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우연히 '만남'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생활하다가 마음이 허전하다 보니 만나게 된 그런 우연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거룩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못 민족의 빛으로 삼으시고 타코마 제일침례교회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하나님의 도' 를 전하도록 만남의 사람들로써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만남'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 넘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감으로...그리고 매일 생활 속에서 작은 믿음의 실천으로서 늘 만남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다시 이 귀한 만남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 부족한 죄인도, 복음에 참여하게 하심에 감사하시면서, 겸손히 최선을 다하여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하시는 가장 복 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눔 복상 질문]

1.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2. 당신의 인생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만남은 무엇입니까?
3.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 때를 나누어 보세요
4. "당신은 누구의 침례를 받았습니까?",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5. 앞으로 내가 첫 번째로 만나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